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obo.or.kr>



시나이산

† 오늘의 전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루카 14,17-14 참조)

낮은 자리에 앉으라 하신 가르침은 겸손을 가장하는 세속의 처세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수님께서서는 곧 이어서 사람들의 보답을 바라지 않는 행복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는 바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제1독서 집회 3,17-18,20,28-29 **제2독서** 히브 12,18-19,22-24ㄱ **복음** 루카 14,17-14

입당송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화답송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낮은 자의 하느님

이역수 필립보 신부 | 3대리구 청소년 담당



“신부님,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그분의 존재를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아직 하느님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올라가려고만 하는 내가 지극히 낮은 곳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려갈 때 비로소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 쉬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똑똑한데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높는데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낮아질 수 있고, 그 내리막길에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높고 귀한 사람도 많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오묘한 신비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드러

납니다.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집회 3.20) 왜냐하면 하느님 역시 당신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실 만큼 지극히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르스의 성자’라 불린 요한 비안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모든 덕(德)을 엮어놓은 묵주와 같고, 교만은 모든 악(惡)을 엮은 묵주와 같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지탱할 수 없듯 사람에게 겸손이 없으면 다른 모든 덕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반면 교만에 빠지면 하느님과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인간 원죄의 시작이 교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은 자신을 굽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낮추는 그만큼 하느님이 높여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 질 것이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는 그만큼 하느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결국 사람들에게 받는 것보다 하느님께 받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은혜로운 일이 아닐까요? **필립보**



견진성사를 통해 신자는 주 예수님과, 또 그분의 교회와 더욱 긴밀히 결합하여 성숙한 신앙의 증인으로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도록 파견됩니다. 견진성사 때 주교님께서 견진 받는 사람의 이마에 바르는, ‘크리스마’라고도 부르는 기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해 교리 퀴즈①9



신앙의 해 특집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가르침②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다

문화홍보실

이제껏 살펴본 두 개의 문헌, 곧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인 〈일치의 재건〉과, 비(非)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은 하느님께서 일치의 근원이며 모든 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하느님의 구원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우리는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 두 문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또 하나의 문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인 〈인간 존엄성〉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신다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은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가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사람은 이 계시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명백히 지적합니다. 하지만 바로 따라오는 단락에서, “이 의무가 인간 양심에 다가가 그 양심을 사로잡고, 인간 정신에 부드럽고 힘차게 파고드는 진리는 오로지 진리 그 자체의 힘으로 드러날 뿐”(1항)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는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사람이 자유롭게 하느님께 응답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양심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이 때문에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존중하시는 것을 사람이 무시할 수 없다

이어지는 대목은 더욱 놀랍습니다. 선언은 2항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유의 권리를 지니며, 또한 올바른 공공질서를 지키기만 하면 이 권리의 행사는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한 종교 단체에 특수 지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모든 시민과 종교 단체의 종교 자유의 권리를 반드시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목적은 사랑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녀이자 벗으로서 당신과 사귀기를 원하시지 노예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진리를 증언해 주셨지만, 반대자들에게 그 진리를 힘으로 강요하지는” 않으셨던(11항)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끈기 있게 복음의 진리를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면서 권능의 말씀이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에 가 닿아 그들이 자유롭게 하느님께 응답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들이 양심의 명령을 두려움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법과 관습의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



“로마 예법에서는 주교가 전체 견진자들 위에 두 손을 펴는데, 사도 시대부터 이 안수는 성령을 준다는 표징이다. … 견진성사는 주교가 한 손을 얹고 이마에 ()를 바름으로써, 그리고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라는 말로써 수여한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299-1300항)

이 코너를 오려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억하면서 살기!

고태권 그레고리오 신부 | 동천본당 보좌

지난 1학기 주일학교 마지막 교리(유치부~고등부)는 성경 암송 대회였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해요?”하는 의문형에서 “암송대회 날 성당에 오지 않을 거예요.”라는 지능적 헐박(?)까지 아이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저는 모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대회를 추진한 계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부담스러워 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였습니다. 성당에 와서까지 머리 아프게 암기를 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친구들 앞에 선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부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암송 대회를 추진한 계기는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어려워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면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 나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일학교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합니다.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잘 정리해서 공책에 기

록을 해 두었더라도 정작 시험 칠 때 기억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기록된 것이 기억될 때 삶에 적용될 수 있지요. 우리에게는 기록된 좋은 것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데도 기억하며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인 우리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작고 가난한 이와 함께 하여라.”, “재물을 탐하지 말고 주 너의 하느님을 믿어라.” 아무리 좋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도 사람이 기억하면서 살지 않으면 말씀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경 암송 대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본당 아이들은 처음 한 것 치고는 암송을 꽤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일 주일 복음을 미사 시간에 암송하였습니다. 허가 꼬여서 혼이 났습니다.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생활에서 잘 실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외웠던 성경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더 은혜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과 미사에서의 기도문, 강론을 그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잘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 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이 기록을 살아있게 하니깐요. **빛과 소금**



며느리의 내려가기!

누구나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별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저 집에 시집 올 며느리는 그 누구도 견디지 못할 거라 장담할 만큼 말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며느리는 이제 죽었다!”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 할머니 성격에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을 텐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는 버르고 벌렸습니다. ‘그래, 처음에 꼭 잡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날거야!’ 이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생트집을 잡고 일부러 모욕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전혀 굴하지 않고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발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한번은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 왔나?”하고 생트집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에서 배워 온다고 배웠는데도 역시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은 자꾸 나무라시고 가르쳐 주세요”하고 머리를 조아리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또 한번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대학 나왔다고 하느냐?” 시어머니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며느리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도리어 웃으면서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어머니!”

무슨 말대꾸라도 해야 큰소리를 치며 나무라겠는데, 늘 이런 식으로 그저 시어머니 발 밑에 엎드리니 피곤한 쪽은 오히려 시어머니였습니다. “내가 졌다. 이제부터 집안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는 권위와 힘으로 며느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겸손되게 낮추고 내려가니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겸손보다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내가 내려간다면, 겸손하다면 이미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 이긴 것입니다. **골로**

금주의 성인



성 예지디오(9월 1일)

650년경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나신 예지디오 성인께서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은수자 생활을 하셨는데 전승에 의하면 사슴의 젖을 먹고 사셨다고 한다. 어느 날 사냥을 나온 왕의 일행 중 어느 포수가 쏜 화살이 사슴을 명중시켰는데 알고 보니 사슴을 대신해 성인께서 상처를 입으셨다. 이에 왕은 용서를 청하며 성인을 위해 훗날 프랑스의 생질(Saint-Gilles)이라 불리게 되는 마을에 베네딕토 수도원을 짓고 원

장으로 임명하였다. 성인께서는 14명의 구난성인(救難聖人) 가운데 한 분으로 장애인과 결인의 수호성인이시며 ‘질’로도 불린다.

부고



이형문(안토니오) 신부님 선종

대구대교구 소속 이형문(안토니오, 향년 52세) 신부님께서 지난 8월 22일(목)에 선종하셨습니다. 8월 24일(토)에 장례미사를 거행하고 군위 묘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故) 장태식(리노) 신부님 선종 1주기 미사 _ 일시: 9.3(화) 오전 10시, 장소: 성직자 묘지
 9월 3일 화요일은 (故) 김규태 디모테오 신부님과
 (故) 박상태 루도비코 신부님 선종 9주기입니다.

■ 교황청 교육성 장관 대구대교구 방문

아시아지역 가톨릭 대학 총회 참석차 방한하신 교황청 교육성 장관 제논 그로홀레프스키 추기경님은 8월 26일(월) 대구 가톨릭대학교 하양캠퍼스와 남산동 대신학원, 대구대교구청을 방문하셨다.



■ 교구장 동정

- ▷ 학교법인 해은학원 이사장 취임 _ 일시: 8월 30일(금) 오전 11시 장소: 오천성당
- ▷ 연일본당 설립 15주년 견진성사 집전 _ 일시: 9월 1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연일성당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연중 제20주일(8월 18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 정답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입니다.

당첨자 : 이준휘(베네딕토, 연일), 구연옥(안젤라, 원평), 박성근(시몬, 연일),

조명희(헬레나, 신녕), 구본형(안드레아, 남산)

앞으로는 내가 먼저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2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타 월례미사	9월 2일(월) 19:30 꾸르실로교육관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9월 2일(월) 11:00 계산성당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례미사	9월 2일(월) 22:00 한티순례자의집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9월 2일(월) 11:00 죽도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9월 7일(토) 9:30 프란치스카눔
9월 후원자 가정을 위한 월례미사	9월 2일(월) 11:30 한국SOS어린이마을 성당	-	-

성소 | 피정

아프리카들꽃마을후원회 아가페 월피정(미사, 강의)
 일시: 9.4(첫 수요일) 13:30
 장소: 꾸르실로 교육관
 지도: 최영배(비오) 신부
 문의: (010)4804-7574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9.7(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성모님과 순교의 월계관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환(야고보) 신부

성이시토피정센터 제주 자연 피정
 기간: 9.29~10.2(일~수) 10.5~8(토~화)
 10.10~12(목~토) 15~18(화~금)
 10.27~30(일~수) 11.2~5(토~화)
 11.11~13(월~수) 21~24(목~일)
 문의: (02)773-1455

춘천교구 천생연분 피정
 오상철신부의 천생연분에서 인연을 찾으세요! 초혼·재혼 수시접수 중
 네이버 카페: 모곡 피정의 집 참조
 문의: (033)434-4204

평창 성필립보생태마을 가정 피정
 기간: 10.18(금) 21:00~20(일) 13:00
 10.25(금), 11.1(금), 11.22(금)
 주제: 행복한 가정 대화(2박 3일)
 비용: 1인당 6만 5천 원(2박 5식)
 문의: (033)333-8066

힐데가르트 영성 피정
 기간: 9.14(토) 15:30~15(일) 16:30
 장소: 툃팅포교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6만 원 / 문의: 313-3425

교육 | 모집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 · 어학연수
 기간: 3차 9.22(일)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해외봉사 인증서(학점인증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선교, 왜 못하는가? 선교세미나 · 미사
 일시: 9.28(매주 토) 10:30~12:30
 장소: 계산문화관 3층
 대상: 하느님의 열정으로 선교 원하는 분
 강사: 이관석 신부 외 다수 강사
 문의: 가두선교단, 781-6100

월배 프란치스카눔 수강생 모집
 성음악(그레고리안 성가): 9.6(금)19:00
 지도: 박대중(디오니시오) 신부
 가곡교실: 9.3(화) 11:00 / 14:30
 지도교수: 김남수, 이선경
 문의: 프란치스카눔, (070)4266-0047

길벗 월례 영성강좌
 일시: 9.9(둘째 월) 19:30, 월성문화관
 9.10(둘째 화) 10:30, 꾸르실로 교육관
 내용: 그리스도인 신앙과 영성의 핵심
 대상: 예수 중심의 삶을 원하는 신자
 문의: 대구 CLC, 752-0555

예수성심 힐링캠프
 기간: 9.20(금)~22(일)
 대상: 20~35세(미혼 여성)
 회비: 1인 3만 원
 문의: 예수성심시녀회수녀원,
 (010)2649-2045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대만 선교지 체험
 기간: 10.18(금)~22(화), 대만 신쥬교구
 접수: 9.10(화)까지, 50만 원(항공료)
 대상: 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산양산삼8년근
중기 천제명홍삼
 농축액골드(기획) ₩86,000
 홍삼액마일드 60포(1+1)
 이옥이(실비아), 도석록(스테파노)
 ☎ 793-5325, 010-7744-5768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철로)
 송 정 애(안철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 · 치매 조기진단
 • MRI, CT, 위/대장 내시경
 • 건강보험검진, 공무원종합검진
대표전화 053) 652-2525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www.appleuro.com
애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오로걸석클리닉(24시간 색세)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옆 두번째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서정의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의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논공가톨릭병원
성요셉요양병원으로 전환**

성요셉요양병원은 친환경적 병실과 24시간 의료진, 전문간병인이 상주하는 노인성 질환 케어전문 요양병원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행사 | 모임

도보성지순례(제9회 등반대회)

일시: 9.28(토) 9:30, 가실성당 집결
코스: 가실성당~신나무골성지(약 3시간)
미사집전: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미사시간: 14:00 예정
신청마감: 9.11(수)
문의: 교구 평단협, 250-3057

신앙의해 기념 '신앙의 빛' 展

기간: 8.27(화)~9.1(일)
장소: 대백프라자 갤러리
참여작가: 김도울(요셉) 신부, 김선애(마리아) 수녀, 김종숙(요안나), 류지현(세바스찬)

꽃 봉헌회 꽃꽂이 전시회

기간: 9.3(화)~7(토)
장소: 한티순교성지(피정의 집 친교실)
문의: 한티, (054)975-5151

정평위 '함께꿈' 월레미사 및 특강

일시: 9.11(수) 19:30, 1대리구청 강당

주제: 하느님나라와 노동인권(하종강)
주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교육 | 모임

**한국천주교회사 및 성지안내 봉사자
3기 수강생 모집(선착순 40명)**

기간: 9.27~14.1.24(매주 금) 19: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수강료: 20만 원
강사: 이찬우 신부, 담당: 서준홍 신부
문의: 봉사자, (010)2802-2703

가톨릭 부모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일시: 9.25(수) 13:30~16: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주제: 자녀와의 대화, 참가비: 5천 원
강사: 류경자 스텔라(영대대학원상담사)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틴스타 성교육 지도자과정 워크숍

일시: 10.5(토), 6(일), 10.12(토), 13(일) 총 4일
대상: 청년, 대학생 등,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
신청: 9.25(수)까지(공문 참조)
문의: 교구 학교복음화담당, 250-3037

영남대학교 내 대학생 주일 미사

일시: 9.8(일) 17:00(첫미사) 매주 주일
대상: 영남대학생 및 인근대학교 학생
장소: 국제 교류처 강당 3층
문의: 2대리구청, 743-7010

2013년 2학기 수도자 지속 교육
심리차원의 인간이해(Sr.김정선 안나)
구약성경 신학총론(Fr.송재준 마르코)
기간: 9.11(수)~12.4(수)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4

2013년 2학기 신학 강좌 수강생 모집
그리스도론, 선교신학, 교회사, 동양철학, 요한묵시록, 교리교육, 장례예식과 연도, 생태영성, 영성, 사목헌장, 신약-구약성경 과정, 신약성경 입문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일시: 9.1(일) 15:00, 회비: 1만 원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관덕정순교자현양후원회원의 날 미사

일시: 9.7(토) 17:00
주례: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문의: 관덕정, 254-0151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팀 모집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255-1582(14:00 이후)

가톨릭호출택시 사도회 회원 모집

가톨릭호출택시 사도회 회원 모집
교우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인 택시도 가능)
문의: 551-1004
강주식, (010)8566-8445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교),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냐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2대째 30년 전통"
성심결혼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 전문직종 및 초혼 재혼 다량 확보 *
☎ 644-4007, 558-3003
비산네거리 서부초 옆 류성실(마리아)

미소나리 출장뷔페
에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나가사키성지순례
제 4 차(선박) : 제 5 차(항공)
9월25일~28일(3박4일) : 10월14일~17일(3박4일)
순례경비 : 순례경비
59만 5천원 80만원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혜래(유스티노)

국내최초 소아난치병 근본치료 한의원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 열감기/기침 • 비염/중이염
• 간질/틱/ADHD/자폐 • 언어장애/보행장애
• 아노증/성장장애 • 감기돌입
"먹기 좋은 딸기맛 증류한약"
한 의 학 박사 김성철(비오)
한 통국대 한의학과 교수
☎ (053)592-1275

유방 갑상선 전문
여의사가 진료하는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반월당네거리 농협 3층
T.053)252-6875